

<b>배포일시</b>	2020. 9. 24.(목) 15:00 (총 2매)		<b>보도시점</b>	<b>즉 시</b>	
<b>담당부서</b>	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<b>담당자</b>	과장 주무관	임하권 이보연	<b>전화번호</b> 053-282-0164

**경북지역 과수의 기상재해, 사전 예방 가능해진다**  
 - 대구지방기상청, 경북 대표 과수 기상융합서비스 제공 -

- 대구지방기상청(청장 고정석)은 10월 1일(목)부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, 상주시·의성군, 상주시·의성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, ‘상주·의성 대표 과수 기상융합서비스’ 시험서비스를 시행한다.
- 경북지역은 전국 1위의 과수 재배·생산지로, 올해는 상주·의성 지역의 대표 과수 6종(△사과 △배 △복숭아 △포도 △자두 △감)에 대해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서비스를 시행한다.
  - 2021년에는 대상 지역 및 서비스 작물을 확대하고, 2022년에는 경상북도 전역에 대한 기상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대구지방기상청은 과수 생육 환경과 기상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, 과수별 위험 등급(△주의 △경계 △위험)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.
  - 특히, 사용자 맞춤형 플랫폼(웹포털 및 모바일)을 구축하였고, 이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운영시스템에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.
    - ※ 제공되는 기상정보 : 8종(서리, 냉해, 동해, 호우, 폭염, 가뭄, 대설, 강풍)
- 이 서비스는 수요자인 농업인이 직접 재배작물과 지역 선택이 가능한 지능형 시스템으로, 서비스 작물별 발생 가능한 ‘기상재해대응 의사결정 매뉴얼’도 함께 제공된다.
  - ※ 시험서비스 지역 동네예보(42개 격자) 대비 약 25배 고해상도(1,030개 격자) 정보 제공
- 대구지방기상청장은 “과수의 생산량 및 품질은 기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.”라며, “기상융합서비스를 통해 지역 특산 작물 피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북지역 과수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# 붙임

# 기상융합서비스 웹/모바일 서비스 제공 화면(예시)

## 웹 포털 서비스

모바일 서비스